

# 우수 인재 전문대학서 양성... 석사 주는 '마이스터대' 출범

교육부, 시범운영 대학 5곳 선정  
2년간 우수모형 발굴...100억 지원  
교수 60%는 현장전문가로 조성  
단기 직무~고도화 과정까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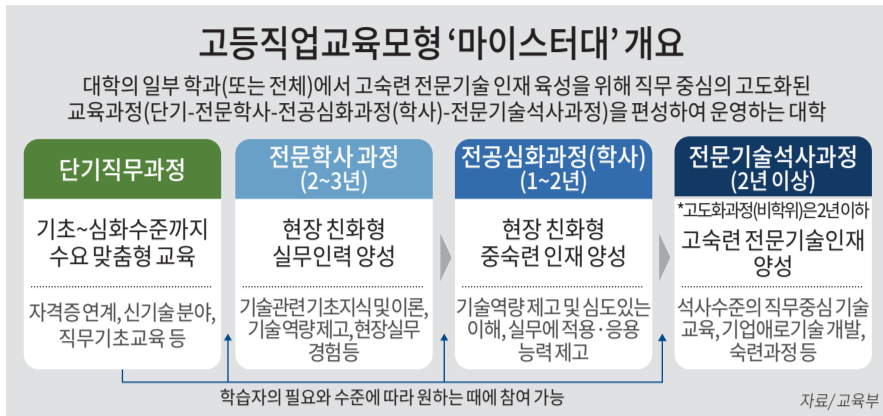
정부가 고숙련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 교육모형인 '마이스터대'를 시범운영하기 위한 대학교 5군데를 선정해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

마이스터대는 전문대 학과에 '단기 직무 과정'부터 '전문학사 과정' '전공심화 과정' '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직무 중심으로 편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다. 특히 일반대 대학원에 진학할 필요 없이 '전문기술 석사 과정'을 밟아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전문기술인에게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과정 고도화...현장 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

교육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5개



의 시범운영 대학을 선정하고 2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마이스터대 우수모형을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총 100억원 규모로, 참여대학은 각 20억원 씩 지원받는다.

1차 연도에는 교육과정 개발과 산학협력 교수학습 체계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등 학생 선발 전 교육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고 단기 직무 과정을 시범운영한다.

신규 학생 선발은 2차 연도부터 가능하다. 단기 직무 과정부터 석사 수준의 고도화과정까지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을 운영해 우수모형을 발굴·확산하고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이 진행 중이며, 관계 법령 개정 전까지는 석사 수준의 고도화과정(비학위)으로 운영된다.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은 기존에 운영하던 전문학사와 전공심화과정(학사)을 개선하고, 단기 직무 과정과 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을 도입해 직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야 한다.

마이스터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는 해당 분야 산업체 또는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사례 기반 교육(PBL)을 하는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현장 친화적 교육환경도 조성된다.

참여대학은 실무능력을 갖추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를 해당 학교 교원의 6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산업계 발전 속도에 맞춰 실습 기기와 실습실을 마련하고, 재직자 학생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이 가능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성인 학습자 친화적 학사 운영을 위해 재직자, 성인학습자의 사회경험·재직경력 등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선행학습경험인정(RPL)제는 물론, 특정 과목을 수업일수 단축 등 일정 기간에 집중해 이수하는 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활용한다.

대학은 기업·지역과 협력을 강화해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인적 자원과 기업의 시설·설비 등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취·창업을 연계해 전문 인재 양성과 유입의 선순환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를 활용해 현장실습 국고지원금지급대상을 대학에서 실습기관(기업)으로 변경하는 등 기업 참여 혜택(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4월 수도권 2곳·비수도권 3곳 선정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권역별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수도권 2교, 비수도권 3교 등 총 5개교를 시범운영 대학으로 선정하며, 학교당 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8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고고를 시작으로, 17일에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은 내달 16일, 오프라인은 내달 17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선정평가는 3월부터 실시되며, 4월 중 참여대학을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를 교부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마이스터대는 고숙련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모형으로서,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모형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시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 운영 방안과 시범운영 학교 선정 계획이 포함됐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국내 최초 대학서 최고 대학으로 거듭”

### 장범식 숭실대 15대 총장 취임 혁신 자세, 도전정신 강조

숭실대학교 제15대 장범식 총장의 취임식이 지난 1일 오전 11시 성남공학관 형남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장범식 신임 총장은 “더 큰 승실, 더 강한 숭실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 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숭실대학교의 비전을 제시했다.

장 총장은 취임사에서 “기독교 대학이라는 정체성 아래 우리만의 특색을 찾아 최초에서 최고가 되는 숭실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장 총장은 ▲디지털시대에



지난 1일 취임식에서 숭실대 제15대 장범식 총장이 교기를 이양받았다. /숭실대

새로운 교육 수요를 창출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대학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쉬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일깨우고 혁신하는 자세를 항상 마음에 되새기며 나아가는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장 총장은 “통섭 융합교육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물리적·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 안전성 입증

### 신주영 성균관대 교수 연구팀

국내 연구진이 자궁경부암 백신의 한국 여성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다. 지금까지의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성 근거가 서양 인구집단 연구에 그쳤던 상황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접종 대상자의 백신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균관대학교는 신주영 약학대학 교수(사진) 연구팀(1차자 윤동원 연구원, 공저자 이해성 박사)이 한국 여성 청소년에서의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2일 밝혔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개발된 이래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돼 3억 건 가량 접종됐을 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통해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비용을 6개월 간격으로 2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료 예방접종임에도 불구하고



고 2021년 기준 자궁경부암 백신 1차접종률은 약 58%에 그친다. 이전 미접종자 대상 설문에서도 73.5%가 이상반응 우려

를 이유로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재)방역연계범부처 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백신 이상반응 연구 및 안전성, 유효성 품질평가 기술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등록 자료를 제공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자료와 연계해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전성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자궁경부암 백신 비접종군 대비 접종군에서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발생한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원광디지털대

###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재정지원’ 가능 대학 인정

원광디지털대학교가 교육부에서 시행한 ‘2020년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에서 ‘교육부 평가인증대학’ 및 ‘교육부 재정사업 지원 가능 대학’으로 평가 받았다. ‘2020년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은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19개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인증 및 역량진단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원광디지털대는 이번 평가를 통해 ‘교육부 원격대학 평가인증대학’ 및 ‘재정사업 지원 가능 대학’으로 인정받았으며,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가능 대학’으로 결정됐다. /이현진 기자

## “韓 아이엘츠 성적 여전히 하위권”

### 2019 40개국 아이엘츠 성적 분석 전 영역 하위권, 제너럴 모듈 38위

세계에서 아이엘츠(IELTS) 시험을 가장 많이 응시한 40개 국가의 성적을 비교한 결과, 한국인의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전 영역 성적이 수년째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엘츠(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란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영국문화원, 호주 IDP에듀케이션이 공동으로 개발, 관리, 운영하는 국제 공인 영어 능력 검증 시험이다. 연간 350만 명 이상이 응시한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정부에서 자국 이민 시 아이엘츠 점수

를 요구하고, 세계 다수 대학 및 유수 기관이 입학 및 취업에 아이엘츠 점수를 활용하고 있다.

시원스쿨은 시원스쿨랩(LAB)이 2일 아이엘츠 주관 기관에서 발표한 ‘2019년 전 세계 주요 40개국 아이엘츠 성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9년에 아카데미 모듈 28위, 제너럴 모듈 3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8년에는 아카데미, 제너럴 모듈 각각 28위와 35위, 2017년에는 30위와 38위였으며, 2015년에는 27위와 37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16년 통계는 주요국이 아닌 모든 시행 국가의 성적으로 발표됐는데, 한국은 231개국 중 167위와 185위를 차지했다. /이현진 기자

## 호서대, 대교협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우수등급 획득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과와 기계자동차공학부가 한국대학교육협회가 주관한 ‘2020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2일 호서대에 따르면 건축토목공학과와 기계자동차공학부는 2020년도 대상 분야인 ‘건축(시공), 기계(자동차)’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해 산업요구인재양성에 있어 우수한 교육수준을 인정 받았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산업 수요에 맞는 대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

교협이 매년 대상 전공분야를 지정해 실시한다. 산업계 관점에서 분석 및 진단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설계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운영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운영성과 등 3가지를 진단한다. 평가 후에는 컨설팅 지원으로 평가 후보와 및 개선 사항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특히 건축토목공학부는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및 운영성과부분, 기계자동차공학부는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설계 부분에 특별히 우수한 점수를 인정받았다. /이현진 기자